

미술비평가들의 노동현실



홍 경 안 의
시시일과

작가노조 준비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2025 작가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학·출판 분야의 집필 작가를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첫 조사다. 지난 3월 10일부터 두 달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중 205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조사 결과 한국 작가의 다수는 저소득·불안정 노동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응답자의 80%가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였고, 절반 이상이 생계를 위해 겸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업 작가라 하더라도 실제 집필만으로 생활 가능한 경우는 약 22%에 불과했다.

이들 중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는 원고료 체납 및 미납 경험이 있었다. 계약서를 항상 작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65.9%에 그쳤으며, 계약 조건을 협상해 본 경험이 있는 작가는 52%에 머물렀다. 협상하지 못한 이유로 ‘관행’이나 ‘협상 기회 부재’, ‘정보 부족’ 등을 꼽았다.

건강 문제도 뚜렷했다. 응답자의 66.8%가 근골격계 통증, 눈 질환, 과로, 번아웃 등을 겪고 있어 집필 노동으로 인한 신체·정신적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작가들은 적정 단가 보장, 표준계약서 개선, 사회보험 및 보호제도 강화, 지불 지연·체납에 대한 제도적 대응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집필활동이 불안정 속 저임금, 건강 리스크를 지닌 노동이라는 점에선 비평가(미술 평론가)들도 마찬가지다. 별도의 공식통계조차 없지만 소득은 ‘2024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미술인 연 소득 1000만 내 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문학 작가들처럼 원고료 체납(지연) 경험도 드물지 않다.

원고료 정산이 정확하고 빠르며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대상은 개인 작가다. 사실상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작가들이 공공기관 대비 고비용을 지출하는 이상한 구조인 셈이다. 그렇다고 작가들의 원고료가 과도하다는 뜻은 아니다. 공공기관 원고료가 그만큼 ‘초현실적’이라는 게 맞다.

평론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 수정권, 수정 및 검토 절차,

2차사용 범위, 데이터베이스·웹 업로드 조건 등, 비평가의 권리 보장차원에서 반드시 직종별 양식이 요구되지만 실상은 평론가용 표준계약서 자체도 없다.

미술비평은 사전 조사, 현장 취재(지역 간 이동도 상당함), 작가 인터뷰, 집필을 포괄하는 복합 노동이다. 이에 기본적인 근골격계·시력 곤란 외에도, 과도한 이동과 시간 압박이 결합해 피로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노동자성 인정 및 조직화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활동 인구 자체가 적고 ‘개별 프리랜서 중심 구조’가 강해 조직화나 제도 개선 논의가 추진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비평가(비평계)들은 아직 보호 체계의 ‘출발선’에도 제대로 서지 못했다.

비평가들은 집필 노동의 권리를 스스로 찾고, 사회는 비평가들의 노동현실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노동을 이어간다면, 결국 비평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미술계 전체의 담론이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 창작과 비평이 함께 건강할 때 비로소 미술 생태계 전체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다.

/미술평론가

K-방산 속도 뒤 구조적 힘 필요



기지 수첩
이 승 웅
(산업부)

현대 전쟁에서는 기술보다 ‘속도’를, 조달 절차보다 ‘확실한 공급’을 원하고 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 방산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세계의 전면에 떠올랐다. 계약 하면 몇 년 뒤에나 첫 물량을 내놓는 서방 업체들과 달리, 한국은 6~10개월이면 실제 납품이 가능한 국가다. 전쟁의 시간이 실시간으로 흐르는 시대, 이 속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다. 글로벌 고객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눈빛이 갑자기 달라진 이유다.

그러나 이쯤에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속도 경쟁력은 과연 얼마나 지속될까. 지금의 ‘빠름’이 영원한 절대 우위일까 아니면 공급망 공백이

만든 일시적 프리미엄일까.

한국 방산의 속도는 생산라인 노동 강도만의 결과가 아니다. 국토 안에 조밀하게 모여 있는 부품·조립 산업 생태계, 기업과 정부 간 빠른 승인 체계, 전시 조달에 준하는 구조적 유연성이 결합해 만들어낸 결과다. 즉 국가 단위의 ‘집단 반응 속도’가 시장 경쟁력으로 전환된 사례다. 한국이 가진 이 독특한 생산 문화와 산업 구조는 분명 경쟁국들이 따라 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이미 주요 방산기업 생산라인은 2~3교대로 풀가동 중이고 일부 품목은 추가 증설 없이는 더 이상 속도를 높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해외 패키지 계약 물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국내 군 현대화 사업까지 겹치면서 생산 일정은 촘촘히 채워지고 있다. 지금의 속도는 효율성보다는 과부하를 견디는 체력’에서 비롯된 면이 크다. 이 상태로는 경쟁력 유지가 아니라 소진이 먼저 찾아올 수 있다.

더욱 위협적인 건 경쟁자들의 대응이다. 미국은 포탄 월생산량을 네 배 가까이 끌어올리는 공격적 증설에 들어갔고 유럽도 ‘A SAP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생산 인프라 확대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 ‘속도 격차’는 결국 좁혀질 것이고 그 순간 한국의 이점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의 속도 우위는 결국 국제 공급망 공백을 메우는 과정에서 얻어진 ‘타이밍의 선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한국 방산이 앞으로 지켜야 할 경쟁력은 무엇일지 답은 명확하다. 속도를 ‘운에 의한 결과’에서 ‘구조적 능력’으로 바꿔야 한다. 생산 자동화, AI 기반 품질 관리, 핵심 부품 이원화, 해외 조립·정비 시설 구축 같은 전략적 투자가 필수다.

속도는 한순간의 기세로 만들 수 있지만, 지속성은 구조로만 증명된다. 지금 한국 방산이 마주한 과제는 더 빠르게가 아니라 더 오래, 더 견고하게 버티는 힘을 만드는 일이다.

/lsy266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2월 10일 (음 10월 21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조상님 은덕. 48년생 운이 상승하니 용기 내어 일을 추진하자. 60년생 입이 경솔하면 주변이 시끄럽다. 72년생 남의 일에 감 뇌라 배 뇌라 하지 마라. 84년생 좋은 꿈을 얻으려면 벌을 키워라.



37년생 좋은 친구를 찾지 말고 좋은 친구가 되자. 49년생 삶의 중심에 자신을 뒤라. 61년생 수영선수가 물을 두려워해서야. 73년생 돈에 여유가 있다면 친구들에게 인색하지 마라. 85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38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으나 자중할 때. 50년생 멀리서 반가운 친구가 찾아온다. 62년생 아직보다는 부족한 공부 하라. 74년생 주변에 꽃이 피었으니 직장에 좋은 일이 있겠다. 86년생 삶다고 금방 달아나지 말고 진중히 생각.



39년생 인간의 보편적 가치는 신용에서 나온다. 51년생 감정컨트롤을 잘해야 행운이 깃든다. 63년생 계획한 일에 결실이 오후에 나온다. 75년생 기대를 한다면 노력도 그만큼 해야 한다. 87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40년생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다. 52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64년생 아름다운 시를 좋아한다고 다 시인이 되지는 않는다. 76년생 사람의 신용 상태를 봐가며 따라라. 88년생 처음이 어렵지만 두 번째는 쉽다.



41년생 돈에 대해 확실한 거절이 상대를 지지하지 않게 한다. 53년생 불바람이 불어오니 마음이 상송생송. 65년생 근거 없는 구설이 발생. 77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89년생 소통과 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



42년생 주변의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54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66년생 가족의 평화가 나의 성공을 이끄는 지팡이. 78년생 투자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라. 90년생 원하던 일이 순조롭게.



43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마음이 혼란. 55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걸 아는지. 67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더 분발. 79년생 몸이 멀리 가니 마음도 멀어진다. 91년생 격한 말로 상대를 피곤하게 한다.



44년생 종로에서 뽕 맛고 한강에 가서 분풀이. 56년생 진실을 알아도 떠들지 말아야. 68년생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이겨내라. 80년생 흥분에 땅을 사면 주변의 원망을 듣는다는 옛말이. 92년생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은혜를 갚으려 온다.



45년생 꽃이 피는 시기는 나무마다 다르다. 57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는다. 69년생 남의 티끌만 보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라. 81년생 건강한 신체에서 보석비가 내린다. 93년생 지나간 일 뒤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46년생 에디스처럼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58년생 어제 본 그 사람을 잊어 버려라. 70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일을 찾아라. 82년생 남의 돈도 사랑으로 대해보라. 94년생 복잡하니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47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즐거운 하루. 59년생 표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71년생 숨은 실력으로 기회가 주어진다. 83년생 외출 시 비상금을 먼저 챙겨라. 95년생 투자 관련 순진하게 누구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라



김상회의四季

오행과 인간관계

며칠 전에 유모(乳母) 관련 얘기를 하면서 인수印綬 오행을 언급했지만 五行의 관계는 인간관계도 극명하다. 사주팔자만 보아도 인수의 작용뿐만 아니라 육친의 관계의 호오를 알 수 있으며 이는 건강과 성격은 물론 출세의 시기 등등 추론이 가능하지 않은 분야가 없다. 언급한 것처럼 인수가 중첩되면 유모뿐만 아니라 양어머니나 새어머니를 두는 경우를 알 수 있다. 이처럼 사주 구조상 자신에게 어머니가 되는 자리는 인수인데, 인수는 나를 생해 주는 오행(五行)을 말한다. 사주의 격이 높으면서 인수가 2개 이상 투간 되면 모친이 두 명 이상인 인연이 펼쳐지는데, 이런 경우 어릴 적 유모를 두게 되거나 양어머니 또는 새어머니 인연을 두는 것이다.

편재보다는 인수가 정서적으로 더 긍정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분석하는데 편인(偏印 나를 생해 주는 오행)이 중첩되면 심정적으로는 힘이 드는 경우다. 이는 새어머니가 덕을 발하는 경우는 드물어 심성 뒤틀린 계모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해외 뉴스를 보다 보면 유명인이 아이들의 육아도우미들과 바람이 나서 아이들의 친모와 이혼을 하면서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경우가 있다. 아마 아버지의 사주에도 여자 문제를 나타내는 편재의 작용도 같이 봐야 하지만 아이들의 사주명조에도 분명 이러한 인수 중첩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는 배다른 형제를 두는 운도 비견(比肩)과 겁재(劫財)의 작용이니, 비견도 과하면 친구들이나 형제로부터 경쟁이 치열해짐을 암시하고 겁재가 왕하면 재물까지 탈취당함을 암시한다. 이는 특히 친구나 형제간에 돈거래 하지 말아야 하며, 하게 되면 주는 마음으로 해야 인간관계가 파탄 나지 않는다. 동업할 때도 비견과 겁재운이다. 오행 작용의 오묘함을 부정할 수가 없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1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14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9	8	5	9	7	1	2	2
2	7	9	6	1	2	9	8	8
1	8	2	2	9	8	7	6	9
9	2	8	1	8	6	2	9	7
2	1	6	7	2	9	8	9	8
9	8	7	9	2	8	2	1	6
8	6	1	8	7	9	9	2	2
7	9	2	8	2	6	8	1	
8	2	2	9	6	1	8	7	9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클라스도쿠110

중·고·고 120